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거부민감성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장은희^{1*}, 양지석², 송재규², 김지윤², 김민서², 양서진², 이정연², 정승아²

¹인천가톨릭대 간호학과 부교수, ²인천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Influence of Self Efficacy and Rejection Sensitivity on College Lif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Eun-Hee Jang^{1*}, Jiseok Yang², Jae-Gyu Song², Ji-Yun Kim², Minseo Kim², Seojin Yang²,
Jung-Yeon Lee², Seong-A Jung²

¹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Incheon Catholic University

²Student, Department of Nursing, Incheon Catholic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거부민감성, 대학생활 적응을 확인하고, 자기효능감과 거부민감성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전국 소재 간호대학의 재학생 154명을 대상으로 URL을 통한 온라인 설문을 시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3.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independent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자기효능감은 3.80 ± 0.63 점, 거부민감성은 2.67 ± 0.83 점, 대학생활 적응은 3.58 ± 0.54 점이었다.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효능감($\beta = .42$, $p < .001$)이었으며, 거부민감성은 대학생활 적응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r = -.24$, $p = .003$)는 있었으나, 영향요인은 아니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높이기 위해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수업방법과 심리-사회적 지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이 필요할 것이다.

키워드 : 간호대학생, 자기효능감, 거부민감성, 대학생활 적응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self-efficacy and rejection sensitivit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and their college life adjustment, as well as to identify the impact of self-efficacy and rejection sensitivity on college life adjustment. An online survey via URL was conducted on 154 enrolled students from nursing colleges nationwid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WIN 23.0 statistical software for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the self-efficacy of the subjects was 3.80 ± 0.63 points, rejection sensitivity was 2.67 ± 0.83 points, and college life adjustment was 3.58 ± 0.54 points. The factor influencing the college life adjustment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was self-efficacy ($\beta = .42$, $p < .001$), while rejection sensitivity showe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r = -.24$, $p = .003$), but it was not a significant influencing facto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utilize various teaching methods and programs for psychological and social support to enhance self-efficacy in order to improve the adjustment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o college life.

Key Words : Nursing student, Self-efficacy, Rejection sensitivity, College adjustment,

*Corresponding Author : Eun-Hee Jang(cartooneh@hanmail.net)

Received March 18, 2024

Accepted May 20, 2024

Revised April 5, 2024

Published May 28, 2024

1. 서론

대학생활의 시기는 성인이 된 후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진로를 준비하고 선택해야 하는 과정으로, 심리적 자립과 사회적 적응이라는 다양한 발달과업이 필요한 시기이다[1]. 특히 대학을 성적, 취업, 혹은 부모의 권유에 의해 결정하는 경우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은 어려울 수 있고, 자퇴 혹은 다른 대학으로의 편입을 하기도 한다[2]. 간호대학생의 경우, 이러한 상황 외에도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와 임상실습, 간호사 국가고시 등으로 대학생활 동안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며[3], 과제와 수업과 관련된 스트레스[4], 학업성적이나 건강상태[5]는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확인되고 있다. 반면, 자존감이나 사회적 지지[3], 자기효능감, 유머감각[6], 자기 주도학습능력[7] 등은 대학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높이기 위한 요인으로 개인적 특성인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에 있어 중요한 특성인 거부민감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자기효능감은 어떤 상황이나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구체적인 자신감을 의미하며[8], 개인이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행동적 하위기술을 조직화하고 효과적으로 조정하는 능력이다[9]. 자기효능감이 높은 대학생은 진로를 준비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데 긍정적인 영향으로 스스로 아이디어와 정보를 창출하고 대안을 찾게된다[10]. 또한, 간호대학생은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전공 만족도[11], 의사소통능력[12]이 높아지고, 임상수행능력이 향상되며[13]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행복감이 증가한다[14].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대인관계와 대학생활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요인[15]이 된다.

거부민감성은 Feldman & Downey[16]에 의해 처음 소개된 개념으로, 대인관계 상황에서 거부당할 것이라는 불안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거부에 대해 항상 지각하고 거부당하는 것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역동적 인지-정서적 과정을 의미한다[16]. 거부민감성이 높을수록 상대방의 행동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지각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강해지므로[17], 동료집단과의 대인관계가 중요한 시기인 대학생 시기에 경험하는 거부민감성은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거부민감성이 높은 학생들은 관계를 맺고 지속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18], 대학생활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19,20]. 간호대학생의 경우 거부민감성이 높을수록 행복감은 감소하며[21], 사회적 유대감이 낮아지고[22], 자아탄력성이 낮아진다[23]. 간호대학생은 대학생활 뿐 아니라 임상실습과 졸업 후 간호사 업무를 위한 대인관계 역량 및 의사소통 역량을 강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거부민감성을 파악하고 대학생활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거부민감성과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연구[19,20]만 있을 뿐, 간호대학생의 거부민감성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특히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거부민감성, 대학생활 적응을 확인하고, 이들의 관계와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되었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거부민감성, 대학생활 적응을 확인하고, 자기효능감과 거부민감성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국 소재 간호대학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편의추출하였다. 표본수 산정을 위해 G*power 3.1.9.7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선행연구[5]를 바탕으로 다중 회귀분석에서 중간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0.8, 투입될 예측변인 10개(일반적 특성 8개, 자기효능감, 거부민감성)를 가정했을 때 최소 표본수는 118명으로 산출되었으며, 탈락율을 고려하여 154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누락 없이 154명 모두를 최종 자료 분석에 이용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Song [24]이 특수 자기효능감과 대비되는 일반적인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대학생과 직장

인을 대상으로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가능한 점수의 총점 범위는 5~50점이며, Song [24]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7$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90$ 이었다.

2.3.2 거부민감성

거부민감성은 Park & Yang [18]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예기분노, 예기불안, 과잉반응, 거부지각의 4개의 하위요인으로 총 16개 문항이며, 각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거부민감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가능한 점수의 총점 범위는 16~80점이며, Park & Yang [18]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1$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92$ 였다.

2.3.3 대학생활 적응

대학생활 적응은 Park [1]에 의해 개발된 전반적 대학생활 적응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대인 관계, 전공 만족, 전공 수월성, 대처 역량, 취업 준비, 학업 충실도의 6개 하위요인으로 총 3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가능한 점수의 총점 범위는 34~170점이며, Park [1]의 연구에서도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2$ 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92$ 였다.

2.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24년 1월 18일~2월 2일까지였으며, 국내 소재하는 25개 간호대학의 각 대학 대표 학생을 통해 대학별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연구 참여 URL을 게재하여, 연구의 목적과 설명문을 확인 후 참여에 동의한 학생은 자유롭게 온라인 설문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2.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자료수집 시행 전에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

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2024-ICCU-IRB-01)을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 사생활 비밀보장, 익명성,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음과 연구에 참여하더라도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으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연구설명문에 제시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책임자가 소속된 대학의 학생들은 취약한 피험자임을 고려하여, 설문 조사에는 연구 책임자가 참여하지 않았으며, 설문조사 시 대학명은 포함되지 않았고, 각 대학의 온라인 자료수집은 동일한 기간에 시행하여 학생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이 모든 사항을 설명문에 제시한 후 시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3년간 보관 후 삭제 및 폐기할 것임을 설명하였으며, 연구 동의서에도 기술하였다.

2.6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3.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2)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거부민감성, 대학생활 적응의 정도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거부민감성, 대학생활 적응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ANOVA를 이용하였으며, 사후검정으로 Scheffé test를 시행하였다.
- 4)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거부민감성, 대학생활 적응 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5) 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여자가 121명(78.6%), 남자가 33명(21.4%)으로 대부분이 여학생이었으며, 학년은 3학년이 57명(37.0%), 1학년이 42

명(27.3%)으로 많았고, 거주형태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가 79명(51.3%)으로 가장 많았다. 간호학 전공 선택의 동기는 취업이 용이하여가 80명(51.9%), 적성에 맞아서가 43명(27.9%)으로 나타났으며,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이 99명(64.3%)으로 가장 많았다.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는 긍정이 90명(58.4%), 보통이 53명(34.4%)이었으며, 주관적 건강상태는 좋음이 91명(59.1%)으로 가장 많았고, 친한 친구 수는 4~5명이 62명(40.3%), 6명 이상이 59명(38.3%)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54)

Variable	Categories	n (%)
Gender	Men	33 (21.4)
	Women	121 (78.6)
Grade	Freshman	42 (27.3)
	Sophomore	31 (20.1)
	Junior	57 (37.0)
	Senior	24 (15.6)
Type of residence	Family living together	79 (51.3)
	Dormitory	38 (24.7)
	Alone	37 (24.0)
Selection motivation	Employment	80 (51.9)
	Recommendation	19 (12.4)
	Aptitude	43 (27.9)
	Others	12 (7.8)
Satisfaction of major	Dissatisfaction	11 (7.1)
	Moderate	44 (28.6)
	Satisfaction	99 (64.3)
Image of a nurse	Negative	11 (7.1)
	Moderate	53 (34.4)
	Positive	90 (58.4)
Subjective health status	Poor	20 (13.0)
	Moderate	43 (27.9)
	Good	91 (59.1)
Number of close friend	≤3	33 (21.4)
	4~5	62 (40.3)
	≥6	59 (38.3)

3.2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거부민감성, 대학생활 적응의 정도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거부민감성, 대학생활 적응의 정도는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80±0.63점으로 나타났으며, 거부민감

성은 5점 만점에 평균 2.67±0.83점, 대학생활 적응은 5점 만점에 평균 3.58±0.54점으로 나타났다.

Table 2. Level of self-efficacy, rejection sensitivity, college life adjustment
(N=154)

Variable	Range	Min	Max	M±SD
Self-efficacy	1~5	1.70	5.00	3.80±0.63
Rejection sensitivity	1~5	1.00	4.88	2.67±0.83
College life adjustment	1~5	2.24	5.00	3.58±0.54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거부민감성, 대학생활 적응의 정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거부민감성, 대학생활 적응의 정도는 Table 3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은 전공만족도,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친한 친구 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자기효능감은 전공만족도가 불만족인 경우(F=4.25, p=.016),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인 경우(F=6.44, p=.002), 친한 친구 수가 3명 이하보다 6명 이상인 경우(F=4.26, p=.016) 높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거부민감성은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음에 비해 나쁨이 높게 나타났다(F=3.50, p=.033). 대학생활 적응은 학년, 전공만족도,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주관적 건강상태, 친한 친구 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년은 1학년에 비해 3학년이(F=4.31, p=.006), 전공만족도가 불만족과 보통에 비해 만족이(F=20.01, p<.001),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인 경우보다 긍정적인 경우(F=10.81, p<.001) 대학생활 적응이 높았으며,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쁨보다 좋음이(F=8.60, p<.001), 친한 친구 수가 3명 이하보다 6명 이상인(F=6.26, p=.002) 대학생활 적응이 높게 나타났다.

3.4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거부민감성, 대학생활 적응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거부민감성, 대학생활 적응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대학생활 적응은 자기효능감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r=.55, p<.001), 거부민감성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r=-.24, p=.003) 나타냈으며, 자기효능감은 거부민감성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r=-.24, p=.003).

Table 3. Difference in self-efficacy, rejection sensitivity, college life adjustment according to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N=154)

Variable	Categories	Self-Efficacy		Rejection Sensitivity		College Life Adjustment	
		M±SD	t or F(p) Scheffé	M±SD	t or F(p) Scheffé	M±SD	t or F(p) Scheffé
Gender	Men	3.77±0.78	-0.23 (.818)	2.63±0.76	-0.28 (.781)	3.63±0.56	0.45 (.654)
	Women	3.80±0.60		2.68±0.85		3.57±0.54	
Grade	Freshmant ^a	3.71±0.53	2.45 (.066)	2.73±0.84	.20 (.899)	3.40±0.49	4.31 (.006) a<c
	Sophomore ^b	3.78±0.64		2.70±0.74		3.58±0.50	
	Junior ^c	3.96±0.62		2.61±0.88		3.76±0.52	
	Senior ^d	3.59±0.72		2.71±0.88		3.47±0.61	
Type of residence	Family living together	3.74±0.58	2.65 (.074)	2.71±0.84	.14 (.866)	3.52±0.52	.99 (.375)
	Dormitory	4.00±0.53		2.64±0.82		3.66±0.49	
	Alone	3.71±0.79		2.64±0.85		3.63±0.63	
Selection motivation	Employment ^a	3.80±0.63	.45 (.716)	2.59±0.86	.96 (.413)	3.54±0.57	3.24 (.024) a=b=c
	Recommendation ^b	3.65±0.53		2.91±0.57		3.33±0.32	
	Aptitude ^c	3.84±0.62		2.69±0.88		3.76±0.49	
	Others ^d	3.86±0.80		2.83±0.78		3.57±0.63	
Satisfaction of major	Dissatisfaction ^a	3.99±0.61	4.25 (.016)	2.57±0.94	.67 (.513)	3.17±0.36	20.01 (.001) a,b<c
	Moderate ^b	3.58±0.59		2.79±0.73		3.27±0.49	
	Satisfaction ^c	3.88±0.62		a=b=c		2.63±0.86	
Image of a nurse	Negative ^a	3.58±0.82	6.44 (.002)	2.60±0.92	1.40 (.251)	3.22±0.30	10.81 (.001) a<c
	Moderate ^b	3.59±0.52		2.83±0.85		3.39±0.50	
	Positive ^c	3.95±0.62		a=b=c		2.59±0.81	
Subjective health status	Poor ^a	3.51±0.75	2.59 (.079)	3.05±1.06	3.50 (.033)	3.27±0.64	8.60 (.001) a<c
	Moderate ^b	3.83±0.62		2.76±0.64		3.43±0.45	
	Good ^c	3.85±0.59		a=c		2.55±0.83	
Number of close friend	≤3 ^a	3.58±0.69	4.26 (.016)	2.83±0.90	2.56 (.081)	3.33±0.56	6.26 (.002) a<c
	4~5 ^b	3.76±0.57		2.77±0.80		3.57±0.46	
	≥6 ^c	3.96±0.61		a<c		2.49±0.80	

Table 4. Correlation among self-efficacy, rejection sensitivity, college life adjustment (N=154)

Variable	Self-Efficacy r (p)	Rejection Sensitivity r (p)
Rejection Sensitivity	-.24 (.003)	1
College Life Adjustment	.55 (<.001)	-.24 (.003)

3.5 대상자의 대학생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대학생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결과는 Table 5와 같으며, 먼저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과 종속변수의 자기상관을 확인하였다. 단변량 분석에서 대학생생활 적응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학년, 전공만족도,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주관적 건강상태, 친한 친구 수와 자기효능감, 거부민감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는 0.19~0.89로 0.1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지수(VIF)는 1.12~5.18로 10을 넘지 않아 독립변수 간에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Durbin-Watson 지수 결과 1.79로 종속변수의 자기상관이 없음

을 확인하였다.

대상자의 대학생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였으며, Model 1에서는 일반적 특성인 학년, 전공만족도,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주관적 건강상태, 친한 친구 수를 통제변수로 Dummy변수 처리하여 투입하였고, Model 2에서는 자기효능감과 거부민감성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분석결과, 대상자의 대학생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자기효능감($\beta=.42$, $p<.001$)으로 나타났다. Model 1에서의 설명력은 약 34%였고($F=8.18$, $p<.001$), Model 2에서의 설명력은 약 50%($F=12.69$, $p<.001$)로 증가하였다.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거부민감성, 대학생생활 적응의 정도를 확인하고, 자기효능감과 거부민감성이 대학생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시행되었다.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정도는 5점 만점에 3.80점

Table 5. Influences of self-efficacy, rejection sensitivity on college life adjustment

(N=154)

Variable	Model 1					Model 2				
	B	SE	β	t	p	B	SE	β	t	p
(Constant)	2.54	0.20		12.70	<.001	1.43	0.30		4.83	<.001
Grade [†] (r=Freshman)										
Sophomore	0.13	0.11	.09	1.20	.234	0.11	0.09	.09	1.25	.214
Junior	0.25	0.09	.22	2.65	.009	0.20	0.08	.18	2.50	.014
Senior	0.11	0.11	.08	1.01	.317	.14	0.10	.09	1.376	.171
Satisfaction of major [†] (r=Dissatisfaction)										
Moderate	0.07	0.16	.06	0.46	.650	0.27	0.14	.23	1.90	.060
Satisfaction	0.46	0.16	.41	2.88	.005	0.58	0.14	.52	4.16	<.001
Image of a nurse [†] (r=Dissatisfaction)										
Moderate	0.04	0.16	.04	0.25	.802	-0.01	0.14	-.01	-0.07	.943
Positive	0.17	0.16	.16	1.05	.296	0.02	0.14	.02	0.13	.894
Subjective health status [†] (r=Poor)										
Moderate	0.20	0.12	.17	1.65	.101	0.06	0.11	.05	0.54	.593
Good	0.35	0.11	.32	3.17	.002	0.23	0.10	.21	2.35	.020
Number of close friend [†] (r≤3)										
4~5	0.24	0.10	.21	2.44	.016	0.17	0.09	.15	1.98	.050
≥6	0.33	0.10	.29	3.33	.001	0.21	0.09	.19	2.34	.021
Self-efficacy						0.36	0.06	.42	6.50	<.001
Rejection sensitivity						-0.04	0.04	-.06	-1.02	.308
	R ² =.39, Adj R ² =.34 F=8.18, p<.001					R ² =.54, Adj R ² =.50 F=12.69, p<.001 Durbin-Watson=1.79				

ref=reference, [†]Dummy variables

으로 도구가 달라 정확한 비교는 어려우나, Kim [25]의 3.38점, Jung & Chae [4]의 2.95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Jung & Chae [4]의 경우 3, 4학년 간호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로 본 연구에서 3학년이 가장 높았던 반면, 4학년의 자기효능감 점수가 가장 낮은 것을 고려할 때 4학년의 국가고시와 취업 준비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와는 다르게 3학년이 가장 낮고 4학년이 가장 높다는 연구결과[4]도 있어 추후 학년 별 자기효능감을 파악하고 그 영향요인을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간호대학생의 거부민감성 정도는 5점 만점에 2.67점으로 Jun [23]의 2.83점과 비슷하였으며 중간 정도의 수준을 나타냈다. 거부민감성이 높을수록 높은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경험하게 되고[26], 대인관계 문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27].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거부민감성에 유의한 일반적 특성은 주관적 건강상태로, 주관적 건강상태를 좋지 않다고 느낀 경우 거부민감성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개인적 노력이 필요하며, 거부민감성과 우울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매개효과를 나타낸다는 선행연구[28]를 바탕

으로 가정과 친구, 교수의 사회적 지지를 강화할 수 있는 전략 또한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정도는 3.58점으로, 도구가 달라 직접비교는 어려우나 선행연구[29]의 3.32점보다 높았으며, 학년별로도 간호대학생 1, 2학년[6]의 3.22점, 3, 4학년[4]의 3.28점 보다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활 적응은 긍정적인 전공만족도,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주관적 건강상태 등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선행연구[30]와 같은 결과였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전공관련 정보제공, 간호 전문가의 특강 및 교류확대 및 비교과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활용하는 방법 등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대학생활 적응이 높아지나, 4학년은 3학년에 비해 낮게 나타난 것을 고려할 때, 4학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구성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효능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가 자기효능감이라는 선행연구[31]와 같았다. 따라서 교수자는 PBL 수업과 같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수업방법[32]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대학에서는 심리 상담이나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친한 친구 수가 3명 이하에 비해 6명 이상인 경우에 대학생활 적응이 높았으며 이는 선행연구[33]와 같았다. 따라서 교우관계를 통한 충분한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교과 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간호대학생의 거부민감성은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일반 대학생의 거부민감성이 대학생활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19,34]와는 차이가 있었다. Kim [34]은 거부민감성이 높을수록 타인이 자신을 거부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여 과잉행동반응을 하게 되고 이는 타인과의 신뢰감 형성과 대인관계를 어렵게 하여 대학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끼치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대상자는 MZ 세대로 불리는 학생들이다. MZ 세대의 경우 기성세대가 관계 형성을 중요시한 것과는 달리, 소모적이고 부담스러운 애매한 관계의 유지에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으며, 주변 사람의 이해보다 나다운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세대이다[35]. 따라서, 이러한 학생들의 성향이 연구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여지며, 추후 간호대학생의 거부민감성과 대인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영향요인 분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자기효능감과 거부민감성의 영향을 확인한 연구로서, 전국 소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온라인 설문으로 인해 특정 학교에 편중되었을 가능성과 대상자 중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 수가 적어 성별의 차이 또한 배제할 수 없어 연구결과 해석에 주의하여야 하며, 추후에는 이를 보완한 연구가 필요하다.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거부민감성, 대학생활 적응의 정도를 확인하고,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대학생활 적응의 정도는 중간보다 높았으며, 거부민감성 정도는 중간 정도의 수준을 나타냈다.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효능감이었으며, 거부민감성은 대학생활 적응에 낮은 상관관계는 있었으나 영향요인은 아니었다. 따

라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높이기 위해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다양한 수업방법과 심리·사회적 지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이 필요할 것이다.

REFERENCES

- [1] S. Y. Park. (2017).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ollege Life Adjustment Instrument for Nursing Students (Master's dissertation. Dankuk University, Cheonan).
- [2] H. J. Cho & J. K. Park. (2013). Adjustment to college of University Students with Disabilities.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47(4), 227-249.
- [3] Y. K. Kwag. (2013). Effect of Self-Esteem, Ego-Resilience, Social Support on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4(5), 2178-2186. DOI : 10.5762/KAIS.2013.14.5.2178
- [4] H. J. Jung & M. J. Chae. (2018). Influence of Self-efficacy and Academic Stress on Adjustment to college Life among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8(8), 403-417. DOI : 10.21742/AJMAHS.2018.08.15
- [5] M. S. Lee. (2023). The Relationship between Grit, Academic Self-Efficacy,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4(4), 170-179. DOI : 10.5762/KAIS.2023.24.4.170
- [6] E. K. Byun & E. S. An. (2019). Relationships between Self-efficacy, Humor sense, Emotional regulation strategies, College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9(8), 75-84. DOI : 10.35873/ajmahs.2019.9.8.008
- [7] S. O. Choi & E. A. Park. (2022). Factors associated College Life Adaptation of Nursing Students in COVID 19 Pandemic: Focusing on Self-directed Learning, Self-Efficacy and Academic Burnout.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2(23), 183-195. DOI : 10.22251/jlcci.2022.22.23.183

- [8] A. Bandur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
DOI : 10.1037//0033-295x.84.2.191
- [9] A. Bandur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Freeman & Co.
- [10] J. M. Kim & J. C. Kim. (2019). The Effects of College Satisfaction and Self-Efficac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5(5), 273-288.
DOI : 10.24159/joec.2019.25.5.273
- [11] D. J. Kim & J. S. Lee. (2014).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Self-Efficacy on Satisfaction in major of Nursing Student.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2), 244-254.
DOI : 10.5977/jkasne.2014.20.2.244
- [12] M. S. Kim. (2016).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Clinical Performance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2(4), 504-513.
DOI : 10.5977/jkasne.2016.22.4.504
- [13] M. J. You & H. S. Han (2021).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Anxiety and Communication Ability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7(3), 298-305.
DOI : 10.5977/jkasne.2021.27.3.298
- [14] S. Kim & S. Lee. (2015). The Influence of Job-seeking Stres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elf-esteem and Academic Achievement on Nursing Students' Happines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7(1), 63-72.
DOI : 10.7475/kjan.2015.27.1.63
- [15] Y. S. Lee, S. H. Park & J. K. Kim. (2014). Nursing Students' Self-Leadership, Self-Efficacy, Interpersonal Relation, College Life Satisfaction.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6), 229-240.
DOI : 10.5392/JKCA.2014.14.06.229
- [16] S. Feldman & G. Downey. (1994). Rejection Sensitivity as a Mediator of the Impact of Childhood Exposure to Family Violence on Adult Attachment Behavior.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6(1), 231-247.
DOI : 10.1017/s0954579400005976
- [17] G. Downey, V. Mougios, O. Ayduk, B. E. London & Y. Shoda. (2004). Rejection Sensitivity and the Defensive Motivational System: Insights from the Startle Response to Rejection Cues. *Psychological Science*, 15(10), 668-673.
DOI : 10.1111/j.0956-7976.2004.00738.x
- [18] M. J. Park & N. Yang. (2017). Validation of Rejection Sensitivity Scale for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9(1), 103-127.
DOI : 10.23844/kjcp.2017.02.29.1.103
- [19] J. Y. Lee & I. Sull. (2018).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Social Achievement Goals, Rejection Sensitivity, and College Adjustment - The Mediating Effects of Rejection Sensitivity -. *Youth Facilities and Environment*, 16(4), 147-158.
- [20] Y. S. Park & B. Kim. (2023). The Relationship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nd Interpersonal Problems: The Mediating Effect of Mentalization and Emotion Dysregulation. *The Korean Journal of Rehabilitation Psychology*, 30(3), 95-113. DOI : 10.35734/karp.2023.30.3.006
- [21] Y. J. Lee & S. Y. Ahn. (2021).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Happiness of Nursing Students: Mediating Effect of Rejection Sensitivity.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2(3), 371-379.
DOI : 10.15207/JKCS.2021.12.3.371
- [22] K. Seo. (2019). Influence of Rejection Sensitivity and Compassion Competence on Social Connections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14), 499-510.
DOI : 10.22251/jlcci.2019.19.14.499
- [23] Y. H. Jun. (2020). Influence of Compassion and Rejection Sensitivity on Ego Resilience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0), 1-15. DOI : 10.22251/jlcci.2020.20.10.1
- [24] Y. Song. (2010).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General Self Efficacy Scale. (Master's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25] S. O. Kim. (2016). The Relationship among Self-Efficacy, Career Decision Making Types and Career Decision Level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2(2), 210-219. DOI : 10.5977/jkasne.2016.22.2.210
- [26] H. Kim. (2018). The Relationship between Early Trauma Experience and Depression in Adolescents: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Rejection Sensitivity, Social Withdrawal, and Interpersonal Problems (Doctoral dissertation., Keimyung University, Daegu).
- [27] H. Kim, Y. Park & Y. Kim. (2020). The Effect of Rejection Sensitivity on Interpersonal Problems in College Student: The Mediating Effect o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Difficulties in Emotional Regulation. *Asian Journal of Education*, 21(3), 779-806. DOI : 10.15753/aje.2020.09.21.3.779
- [28] J. H. Kim & J. Lee. (2021). The Mediating Effect of Experiential Avoidance and Social Support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nd Depression in Early Adulthood.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1(14), 787-800. DOI : 10.22251/jlcci.2021.21.14.787
- [29] J. K. Kim, W. Kim & S. Lee. (2020). Correlation of Self-Efficacy, Stress Coping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1(7), 120-126. DOI : 10.5762/KAIS.2020.21.7.120
- [30] J. H. Oh. (2014). The influencing factors of Self-esteem and Major Satisfaction on College Adjustment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10), 873-884. DOI : 10.5392/JKCA.2014.14.10.873
- [31] Y. J. Oh. (2017). Predictors of College Life Adjustment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7), 307-317. DOI : 10.14400/JDC.2017.15.7.307
- [32] S. E. Lee & Y. M. Kim (2018). The Effects of PBL Class on University Student's Creative Problem Solving Competence, Self-efficacy and Class Participation.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8(2), 73-89. DOI : 10.21024/pnuedi.28.2.201806.73
- [33] M. H. Lim. (2018). Effect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Self Differentiation on Colleg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9(9), 225-233. DOI : 10.5762/KAIS.2018.19.9.225
- [34] D. E. Kim. (2020). The Effect of Rejection Sensitivity and Self-Silence on University Students'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Gender (Master's dissertation. Luther University, Yonjin).
- [35] J. H. Jeon. (2023). A Study on the Relationship Perceptions of Generation MZ- Focusing on the essays of Kim Soo-hyun's (Master's dissert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eoul).

장 은 희(Eun-Hee Jang)

[정회원]



- 2013년 8월 : 중앙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 박사)
- 2017년 3월~현재 : 인천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당뇨병관리, 응급간호, 중환자 간호
- E-Mail : cartooneh@hanmail.net

양 지 석(Ji-Seok Yang)

[학생회원]



- 2019년 3월~현재 : 인천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 관심분야 : 응급간호, 노인간호
- E-Mail : jiseok1218@naver.com

송 재 규(Jae-Gyu Song)

[학생회원]



• 2019년 3월~현재 : 인천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 관심분야 : 응급간호
- E-Mail : songandol@naver.com

양 서 진(Seo-Jin Yang)

[학생회원]



• 2021년 3월~현재 : 인천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 관심분야 : 항암간호, 중환자 간호
- E-Mail : sjsj3389@naver.com

김 지 윤(Ji-Yun Kim)

[학생회원]



• 2021년 3월~현재 : 인천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 관심분야 : 수술간호
- E-Mail : jy90625@gmail.com

이 정 연(Jung-Yeon Lee)

[학생회원]



• 2021년 3월~현재 : 인천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 관심분야 : 호스피스 간호, 중환자 간호
- E-Mail : ujm2248@naver.com

김 민 서(Min-Seo Kim)

[학생회원]



• 2021년 3월~현재 : 인천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 관심분야 : 중환자 간호, 여성 간호
- E-Mail : kimms30505@naver.com

정 승 아(Seung-A Jung)

[학생회원]



• 2021년 3월~현재 : 인천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 관심분야 : 응급 간호
- E-Mail : siverlight1213@naver.com